



# 한 주 관찰, 선생님과 나눠요

집에서 본 장면을 같은 결로 나누는, 작은 다리에요.



이건 **평가가 아니라 관찰 공유**예요.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, 집과 기관이 본 아이의 모습을 겹쳐 보면 한 아이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. **본 대로** 적어 주세요.

아이 이름

관찰한 주

이번 주, 반복해서 본 장면 — 자주 나온 행동·상황

아이가 편안해 보였던 순간·상황

이번 주 새롭게 본 모습 하나

집에서의 작은 변화

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은 것 — 궁금한 점, 함께 보고 싶은 것

한 줄은 점이에요. 집과 기관의 점이 모이면, 아이의 ‘흐름’이 더 선명해져요. — TaleNest